

박찬욱·찬경 형제가 파고든 남북 분단

<영화감독> <현대미술 작가>



단편영화 '격세지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공동 제작한 '반신반의' (아시아문화전당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7월 8일까지 '파킹찬스'전

중단편 영화 6편·사진·뮤비 등 선 보여
남북관계 다룬 신작 '반신반의' 첫 상영
'공동경비구역 JSA' 모티브 '격세지감' 눈길
박감독 미술관 연작·풍경 사진 등 최초 전시

옛된 얼굴의 소년병은 홀로 남겨졌다. 인민 군복을 입은 그는 라디오를 듣고, 책을 읽고, 하모니카를 부른다. 나지 마히 들리는 '고향의 봄'이 아련하다. 사진 200여장을 연속해서 보여주는 작품 '소년병'(16분 9초). 박찬경 작가가 "전쟁 중 만난 인민군이 너무 어리고 순진한 모습이어서 깜짝 놀랐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데올로기와 무관한, 자유롭게 순수한 북한의 이미지를 가능할까 하는 생각에서 제작한" 작품이다.

전시장 입구, 박찬욱 감독의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 (2000)' 영상을 지나면 3D 안경을 쓰고 관람하는 단편영화 '격세지감'(2017·17분 53초)을 만날 수 있다. 이어진 지 17년 된, 이제는 낡고 황폐해진 '공동경비구역 JSA' 영화 세트장을 배경으로 촬영된 작품이다. 실제 영화 속 인물들은 군복을 입은 마네킹이 대신하고, 그 옆에는 총구를 마주하고 삼각대에 고정된 두 자루의 권총이 보인다. 이영애, 송강호 등 '공동경비 구역 JSA' 속 주인공들의 목소리가 겹쳐지는 가운데 카메라는 좁은 삭막한 공간을 응시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기획한 '파킹찬스 PARKing CHANce 2010-2018'전(7월8일까지)은 흥미로운 전시다. '파킹찬스 PARKing CHANce'는 '올드보이' '아가씨' 등을 만든 영화감독 박찬욱과 현대미술 작가 박찬경 형제가 공동 작품을 제작할 때 쓰는 이름으로 박(PARK)이라는 성과 찬(CHAN)이라는 돌림자에서 따왔다.

이번 전시작은 두 사람이 함께 제작한 6편의 중단편 영화와 처음 공개되는 사진 작품,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고 있다.

전시작 가운데는 남북 문제를 다룬 작품들이 눈에 띈다. '드라마틱하게' 변화해 가는 남북 관계를 이야기하듯

각각의 작품들은 제작 당시의 상황들을 드러내 보이며 '지금 현재' 다양한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전시 개막을 앞두고 8일 기자 간담회에 참석한 박찬경 작가는 "분단 문제는 형이나 저나 오래 전부터 다뤄왔던 테마로 남북 관계는 요동쳐왔고, 드라마틱하게 변화돼 왔다"며 "예술작품의 특성상 정치적 현안과 지나치게 연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분단은 엄청나게 중요한 상황이고 작가가 작품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박찬욱 감독은 영국 BBC 드라마 촬영 관계로 영국에 머물고 있어 간담회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아시아문화전당과 제작한 신작 '반신반의'(2018·31분 33초)는 남북 취조실이 배경으로 등장한다. 영화는 북쪽에서 취조를 받는 한 여성과 남쪽에서 취조를 받는 남성의 모습을 번갈아가며 보여준다. 특히 남북한의 취조실이 '하나'로 연결돼 있는 듯한 공간구성과 남북을 오고가는 그들의 삶은 누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꼬여버린 '남북 관계'를 고스란히 느끼게 해준다. 영화는 남북 취조실과 똑같이 만들어진 공간에서 상영되며 상영관 뒤편에는 영화 속 북한 공간기판 취조실과 동일한 세트를 그대로 구현해 놓았다.

또 '격세지감'은 2017년 미사일 위기로 남북관계가 악화일로 일 때 제작된 영화다. 황폐한 세트장과 마지막 나뭇구는 마네킹 인형 등은 당시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또 두 사람의 첫 작품이자 최초의 아이폰 영화로 베를린 국제영화제 단편부문 황금곰상을 수상한 '파란만장'(2011·33분 16초). 판소리 스승과 제자의 하루를 그린 송강호 주연의 '정출어람'(2012·19분 23초)도 상영된다.

박 작가는 '정출어람' 등에 대해 "원래부터 전통문화에 관

심이 많았고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 역시 현대적인 요소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생각에 작업한 작품"이라며 "작품 제목을 사자성어로 짓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밖에 시인들이 찍은 서울 풍경을 편집하고 가공한 '고진감래'(63분 6초), 가수 이정현의 뮤직비디오 'V' 영상과 촬영 소품 등을 만날 수 있다.

두 사람의 사진 작품은 이번에 첫 공개된다. 항상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박찬욱 감독은 '큰 것을 작은 것처럼, 작은 큰 것처럼' '자연물을 인공물처럼, 인공물을 자연물처럼' 찍은 풍경과 정물 사진을 선보인다. 또 박감독이 '내가 미술관에서 세계 명작들과 나누는 대화'라고 밝힌 흥미로운 '미술관 연작' 시리즈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공간 구성도 눈길을 끈다. 정의업 건축가가 디자인한 공간은 영화와 사진에서 공감을 얻어 구성했으며 곳곳에 실 수 있는 공간을 배치했다. 중단편 영화 등 영상 작품이 많아 시간을 넉넉히 잡고 영화 상영시간을 확인한 후 관람하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다.

박작가는 "공동작업의 경우 형은 엄청난 규모의 예산을 쓰는 장르영화의 부담을 덜고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더 영화적인 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파킹찬스의 작품은 자유롭다"며 "현대미술은 많이 어렵다고 하는데 좀 더 대중적인 것들을 시도해 본 작품"이라고 말했다.

티켓 한정(5000원)으로 전 세계 51명 작가의 회화작품 170여점을 선보이는 '베트남에서 베를린까지'와 토마스 사라세노의 작품 등을 함께 관람할 수 있다. 화~일요일 오전 10시~오후 6시(수·토요일 오후 7시), 월요일 휴관. 문의 1899-556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신춘기획전 '봄의 연가'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김화영·전현숙 등 5명 전시

'작품으로 떠나는 화사한 봄 나들이.' 광주문예회관(관장 서병천)이 신춘기획전 '봄의 연가'전을 진행한다. 14일부터 4월 15일까지 광주문예회관 갤러리.

이번 전시에서는 회화·조각·공예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김단비·김화영·서경란·전현숙·주리영 작가 등 5명이 봄을 표현한 30여점을 선보인다. 금속공예가 김화영은 자연에서 발견한 다양한 이미지를 자신만의 조형 감각으로 풀어낸 작품들을 선보인다. 스틸, 브론즈 등을 먹그림과 배치해 화사한 꽃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김단비 작가의 '별유천지' 시리즈는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이지 않는 성질을 이용해 우연의 효과를 살려 화려한 색깔을 전달하며 주리영 작가는 불철에 화려하게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꽃을 삶에 비유한 작품을 전시한다.

과장된 얼굴의 인물상을 선보이는 전현숙 작가는 힘들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롭게, 나비처럼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내면의 심정을 작품에 표출했으며 서경란 작가는 봄을 알리는 전령사인 매화를 소재로 다양한 그림들을 선보였다. 관람시간은 공연 있는 날은 오후 1시부터 밤 9시, 공연 없는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 가능하다. 문의 062-613-83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화영 작 '봄의 연가'



전현숙 작 '그 여자'

런던 내셔널 갤러리 명화 감상

인문지행 문화예술기획... 18일 광주극장 영화의 집

세계미술관의 명화를 감상하는 33회 인문지행의 문화예술기획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광주극장 영화의 집에서 열린다.

이번 기획에서는 영국 런던 내셔널 갤러리 동관에 전시되고 있는 1700년대~1900년대의 대표적인 명화들을 감상한다.

집중적으로 감상하게 될 작품은 마네의 걸작 '뒤일리 공원의 음악회', 인상파의 대표 화가 모네의 '수련이 핀 연못'과 '생 라자르 역', 고흐의 '고흐의 의자', '해바라기', 드가의 '페르난도 서커스의 라라', 르누아르의 '우산을 쓴 여자들' 등이다.

인문지행의 문화예술기획은 세계 미술관의 명화 감상을 통해서 문화 예술적 가치를 시민과 공유하며 인문적 정신의 확장을 지향하는 시민강좌다. 기



'고흐의 의자'

획과 진행은 인문지행의 대표 심옥숙 박사가 맡고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문의 010-2656-9208, 010-5205-566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